

2010.04.07 미래정책연구소

1. USDA 보도자료 (2010.04.02) 주요 내용

- 미국 농무부 Vilsack 장관은 4월 2일 일리노이주 타즈웰 카운티의 식품 가공회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3월 미국내 직업 162,000개가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 부양 법안 시행에 따른 결과이며, 이에 따라 일리노이 주의 경우 식품 가공공장을 지원하면서 133개의 신규 직업이 창출되었다고 언급함.
- 이 식품 가공공장은 1937년에 설립되었으며, 이전 소유주가 공장을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665만 달러의 자금이 지원되면서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었음.
- 미국 농무부 및 행정부에서는 산업 및 지역사회의 사회 기간구조 및 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500여개의 국립, 주립, 지역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산업, 거주민, 농민, 목장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320억 달러의 자금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음.

1. AFP (2010.03.31) 주요 내용

- 미국내 꿀벌의 개체수 감소현상이 발견된 2006년 이후, 꿀벌 개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 농무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꿀벌 개체 감소율은 2007년 32%, 2008년 36%, 2009년 29%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벌꿀 생산 감소 및 꿀벌의 수분에 의존하는 작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이 꿀벌이 대량으로 폐사하는 '군집 붕괴 현상(Colony Collapse Disorder, CCD)'은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음.
- CCD의 주원인으로 바이러스, 기생충, 살충제, 영양분 부족, 환경 파괴 등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결정적인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CCD의 주요 원인에 대해 미국 양봉협회 David Mendes 회장은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파악하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으로 살충제의 사용량 증가를 들고 있음.
- 이에 대해 과학지 'PLoS(Public Library of Science)' 최신호에서 미국 23개 주와 캐나다에서 꿀벌과 꽃가루, 벌집 등에서 채취된 887개 샘플에서 121종류의 살충제가 검출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살충제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음.

*자료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소